

방사광가속기 유치 손잡은 시·도...군공항 이전 해법도 찾을까

광주시·전남도·전북도 공동 건의...호남권 상생길 열리나

민선 7기 한전공대를 유치한 전남도가 4세대 방사광가속기 설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충청권·영남권에 편중돼 있는 연구중심대학 및 연구시설을 조금이라도 뒤쫓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사광가속기를 갖춰야 한다는 절실함이 내재돼 있다. 청년 고용과 미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 연구 기반시설이 전무한 전남의 여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코로나 19 사태'의 방역을 진두지휘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 정부와 여당을 찾아가 설득하고, 광주 시청을 찾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직접 협력을 요청하는 등 내내 수 있는 '카드'를 모두 쏟아내고 있다. 전북지역의 6개 대학을 까지 참여하는 호남권 21개 대학의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건의도 과거 한 번도 없었던 사례다.

기초과학 토대 방사광가속기 호남에만 없어...도 유치 심혈 국가자문회의도 구축 의결 군공항 TF 결과 상생 시험대

정부는 기존 방사광 가속기의 성과와 용량 등이 부족해 가속기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형가속기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 지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를 새로 구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양성자 가속기의 성능을 향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1년까지 대전에 있는 중이온 가속기를, 2023년까지 부산에 있는 방사광 가속기에는 빔 라인을 증설할 계획이다. 전남은 새로 구축되는 '산업 지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의 나주 빔가람 혁신도시 유치를 바라고 있다.

호남에만 없는 가속기, 전남 유치 위해 광주·전북 협력 약속=방사광 가속기는 현재 포함공대가 총2기(3세대 원형, 4세대 선형)를 운영 중이며, 타사·도에서는 방사광 가속기 이외에 입자를 사용하는 양성자(경주)·중이온(대전)·중입자(부산) 가속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과학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속기가 호남에만 없었다 보니 연구시설, 관련 기업 등의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방사광가속기는 화학, 생물, 전기, 의학 등 기초연구는 물론이고 반도체, 바이오신약, 2차 전지, ESS(에너지저장장치), 미래 청정 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모든 과학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유력한 경쟁 후보지인 충북 오창지구 대안 중이온 가속기와 함께 과학

비즈니스벨트로 지정돼 있고 이격거리도 39km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사광 가속기는 균형발전과 시설의 안전성을 중시해야 하며, 스웨덴이나 일본이 경우도 수도에서 수 백km 떨어진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유치할 경우 국가적 과제인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반을 다져 확충해 광주의 AI(인공지능)·자동차 산업, 전북의 농업 바이오·탄소산업, 전남의 에너지신소재·의료 바이오산업 등 호남권의 핵심 산업에 크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 공동건의 계기로 호남권 상생길 열리나=이번 공동건의는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움직여 광주와 전북을 끌어들이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대규모 사업 유치가 있어서 비슷한 사례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나 전북 역시 호남의 단합된 모습이 필요하면 언제든 상호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모델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동건의에 포함된 다른 지역의 사업에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협력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당장 광주 군 공항 이전, 통합 민간공항 명칭 문제를 논의할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동 TF(전담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존 용역을 기반으로 정부에 건의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시·군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 무엇보다 걸림돌이다.

국회 문턱을 못넘고 있는 전북의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원대학'도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이 관련 법 제정, 대학 설립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가능한 과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광주 남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후보자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선관위 오늘부터 이틀간 총선 후보자 등록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총선과 동시에 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된다. 선거일 기준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피선거권 자격사유가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

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 승낙서를 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동구를 김성환·여수를 권세도·순천갑 노관규 무소속 출마

광주·전남 총선 경쟁 구도 변화

더불어민주당과 민생당 4·15 총선 경선 후보들이 잇따라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민생당 광주 동남을 김성환 예비후보는 2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4·15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저와 박주선 후보의 동의를 전제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7대 2로 저를 공천했다. 하루 만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천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또 "현역 의원 모두를 공천한 것은 세대교체를 열망하

는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무런 당내 경쟁도 없이 기득권을 옹호하려는 것이다"며 "언론사의 5차례 여론조사에서 박주선 후보와 비교해 대략 2배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여론조사에 응한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다"고 비난했다.

김 예비후보는 앞서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공천을 받았지만, 박주선 의원의 반발로 최고위원회가 재의를 요구하고 재심을 거쳐 공천이 취소됐다. 김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동남을은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 민생당의 박주선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앞서 민주당 여수를 선거구에서 컷오프

(공천 배제)됐던 권세도 예비후보도 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여수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컷오프된 이후 선당후사 정신으로 제2의 정치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고심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 노관규 예비후보도 지난 19일 당을 떠나 총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노 전 시장은 순천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순천 출대와 전략 공천 등 순천이 당하고 있는 정치 현실에 분노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민층엔 희망, 부유층엔 안도감 주는 정책을



김은영의 '그림 생각'

(306) 금융위기

최근 사상 초유의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공부를 참 많이 하게 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거의 공포 수준이라 연일 경기부양책이 발표되면서 국제, 환매조건부채권, 양적완화정책 등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에 신문마다 가득하다. 혹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순천 출대와 전략 공천 등 순천이 당하고 있는 정치 현실에 분노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16세기 플랑드르 화가 쿠엔틴 마세이스(1466~1530)의 작품 '환전상과 그의 아내' (1514년 작)는 어느 때 같으면 도록을 넘기면서 그냥 지나쳤을 그림이다. 세계 금융 여파로 원 달러 환율도 급등한다하니 '환전상'이라는 제목이 시선을 붙들어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 검은 터번을 쓴 환전상 남편은 아주 신중하듯 모습으로 왼손에 저울을 들고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듯한 여러 동전들의 무게를 재면서 조연을 구하려는 듯 자신의 아내에게로 몸을 기울이고 있다. 아내는 워낙 단정함을 표시하기 위해 한 손은 기도서 위에 올린 채, 어쩐지

불안한 눈빛으로 저울을 바라보고 있다. 그 불안감은 장사에는 절대적인 것 혹은 신성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리라. 돈과 신앙, 세속적인 것과 신성함,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일종의 풍자화이기도 한 이 그림은 화면 곳곳에 이를 위한 상징들과 장치를 배치하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두 가지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볼게 한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익을수록 힘이 되는 유권자

대한민국 필독서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 4월 15일(수)

사전투표일 | 4월 10일(금) ~ 4월 11일(토)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권 연령 |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선거정보포털
nec.go.kr



후보자 정보
info.nec.go.kr



정책·공약알리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tdebates.go.kr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와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